

## 아쿠타가와상을 통해 본 제일조선인문학

임향란\*

### 1. 들머리

주지하다시피 아쿠타가와상(芥川賞)은 일본문단에서 오랜 전통과 더불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이 문학상은 1935년에 당시 문예춘추사를 경영하고 있던 기쿠치짱(菊池寛)이 아쿠타가와류노스케(芥川龍之介)를 기념하고 잡지를 선정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기쿠치짱은 그 자신이 소설가이면서 친구였던 두 소설가 즉 아쿠타가와류노스케와 나오키 산주고(直木三十五)를 기리기 위해 두 개의 상을 제정했다. 아쿠타가와상과 直木상이 바로 그것이다. 대중문학을 대상으로 한 나오키상에 비하여 아쿠타가와상은 순수문학을 지향하되 단편을 대상으로 하여 신인작가에게 수여했다.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 시상한다. ‘일본문학진흥회’는 이 상의 후보작선정을 위해 그해 일본의 각종 잡지, 동인지, 단행본 등에 발표한 3천여편이 넘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예선에서 7-8편 내외의 후보작을 선정한다. 그리고 이들 후보작은 다시 일본문단의 원로 및 중견 작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로 넘겨져 이곳에서 1-2편의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 수상작품의 수준유지를 위해 수상작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상 선정과정을 놓고 볼 때 아쿠타가와상 수상은 일본에서 문학신인으로서의 등단을 의미하며 작가적 역량을 충분히 긍정받는 것으로 된다. 제일조선인문학도 일찍부터 이 상에 도전해왔고 기꺼운 성과를 거둔 줄로 안다.

본고에서는 정체성 차원에서 제일조선인문학의 아쿠타가와상 후보작 및 수상작을 살펴보도록 한다.

### 2. 제일조선인문학 아쿠타가와상 후보작 및 수상작 스케치

제일조선인문학과 아쿠타가와상의 인연은 광복 전 제일조선인문학의 초창기부터 맺어진다.<sup>1</sup> 주지하다시피 김사량(1914-1950)은 제일조선인문학의 개척자의 한 사람이다. 1939년 “文藝首都”에 김사량의 ‘빛속에서(光の中に)’는 이은직의 ‘흐름:(ながれ)’과 함께 아쿠타가와상의 선정위원회가 300여명의 문예 관계자에게 추천의뢰를 하여 예선에서 통과되어 제10회 후보작으로 선정된다. 그런데 ‘흐름’은 중간에서 탈락하고 만다. 이에 반해 ‘빛속에서’는 승승장구로 최종 예선을 통과하여 11인의 심사위원들 가운데 7인이 민족의 비극적인 운명을 잘 그렸다는 호평을 내렸다. 이 소설은 일본인 아버지와 조선인 어머니를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 소년의 심리를 통하여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의 민족적인 차별과 잘못된 우월감의 희생자라는 것을 토로하고 있다. 이로부터 일본사회에서 살아가는 조선인들이 억

\* 四川外大

<sup>1</sup> 제일조선인문학의 일본에서의 수상은 1932년 장혁주(1905-)의 ‘餓鬼道’ 즉 피폐해진 농촌을 배경으로 공사관에서 일어난 일본인 감독과 조선인 십장의 착취와 이에 반항하는 조선농민들의 봉기를 다룬 작품으로 “改造”의 현상공모에 2위로 입상했는데 이것이 선편을 잡은 것으로 사료된다.

압과 차별속에서 어떻게 인간성이 왜곡되고 모대기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sup>2</sup> 그리하여 ‘밀렵자(密獵者)’와 공동 수상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유력한 후보작이 되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탈락하여 수상작과 함께 “文藝春秋”에 게재되는데 그치고 말았다. 탈락이유로 주제가 선행하고 인물이 정형적이라는 작품상의 결점이 지적되기도 했지만 주요하게는 수상자를 한 명에 한 한다는 작품 외적인 문제에 더 기인한 줄로 안다. ‘빛속에서’는 재일조선인 문학의 시발점으로 인정을 받는 작품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재일조선인 문학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복 후, 1953년 김달수의 ‘현해탄(玄海灘)’이 아쿠다가와상 제30회 후보작에 오른다. 이 작품은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식민지현실속에서 지식인들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뇌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 서경태는 일본에서 기자생활을 하다가 일본 여성과의 연애실패때문에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그는 고국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오직 자신의 경성일보사 입사만 생각하는 속물적 근성의 지식인이었다. 그는 경성일보사의 기자가 되어 양정중학교 학생들의 반일운동사건을 취재하러 갔다가 식민지조선의 현실에 눈을 뜨게 된다. 그리하여 조선청년들에게 학도병 지원을 호소하는 기사를 써야 하는 자신의 모습에 회의를 느낀다. 그리고 자신은 식민지배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당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다른 한 주인공 친일지주의 아들인 백성오는 민족주의운동에 가담했다가 투옥되기도 한다. 그는 자신의 출신성분과 일제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현실 때문에 현실도피적이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는 형사인 이승원의 꾀임에 빠져 비밀회합에 참가하게 되며 공작원의 사명을 띠고 성진의 공장파업을 지원차 떠나다가 검거된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민족적인 자각을 하게 되는 조선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주인공 서경태와 백성오는 당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민족적 각성을 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해탄’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조선민족의 저항정신과 피지배민족의 비애를 잘 나타낸 작품으로서 9편의 후보작품가운데 가장 읽을 맛이 나는 훌륭한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그런데 단편을 선정한다는 원칙때문에 ‘현해탄’은 장편소설인만큼 문제가 되어 결국 탈락하고 만다. 김달수는 1958년 ‘박달의 재판(朴達의裁判)’으로 다시 아쿠다가와상 제40회 후보에 오른다. ‘박달의 재판’은 광복 후 좌우이념대립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남한의 어느 소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박달이라는 젊은이를 통하여 남한정부와 미군정에 항거하는 민중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무지하고 순박하던 박달은 감방안에서 단시간 내에 글을 배워내고 신념을 갖게 되며 성장하게 된다. 그는 출옥 후 뼈라를 뿌리며 파업을 선동하고 주도하는 투사로 변신한다. 그는 어리석은 인물 같으면서도 모진 고문에는 거짓 전향을 하고 석방이 되어서는 다시 투쟁을 되풀이하는 신념을 굽힐 줄 모르는 의지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다. 이 작품은 박달의 성격과 행동이 모순되고 주인공의 영웅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주변인물이 도식적으로 그려져 있어 사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박달의 유머스러운 언동을 통하여 민중의 억압에 대한 반항과 지식인의 고뇌 및 전반 민족의 슬픔이나 고통이 잘 그려져 있어 많은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

<sup>2</sup> 본고에서 작품소개는 “文藝春秋” 3월호와 9월호에 아쿠다가와상의 선정결과와 함께 발표되는 심사평에 준한 것이다.

래서 ‘박달의 재판’ 외에 다른 작품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단연 뛰어난 작품이라고 심사위원회에서 드물게 수상작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달의 재판’은 신인이 아닌 문단에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기성작가가 창작한 작품이라는데서 탈락되고 만다.

이외에 1960년대에 귀화하여 일본인명을 사용하는 立原正秋가 제51회, 제53회, 飯尾宪士가 제52회의 아쿠다가와상 후보에 올랐던 적이 있다.

1969년 이회성(1935-)이 ‘우리 청춘의 도상에서(われらの青春途上にて)’로 제62회 아쿠다가와상 후보에 오른다. ‘우리 청춘의 도상에서’는 어두운 재일조선인 가정에서 가출한 주인공의 눈을 통해 현실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가고 있는 재일조선인들의 우울하고 고난에 찬 삶과 일본 사회에서 정치적 신념을 위해 조직활동을 했던 이들의 좌절과 실망이 표현되어 있다. 특히 후반부에는 김희로사건을 연상시키는 인질사건을 통하여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재일조선인 젊은이의 상실감 등이 그려져 있다. 전반적으로 이 작품은 재일조선인 소년의 눈에 비친 아파트에서의 합숙생활, 재일조선인 일용노동자의 생활 등을 젊고 싱싱한 필체로 잘 그려 놓았으나 후반부에 가서 필체가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평범한 소설이 되고 말았다는 문제점 때문에 최종 심사에서 탈락되었다.

이회성은 1970년에 ‘증인이 없는 광경(證人のいない光景)’으로 다시 제63회 후보가 된다. 이 작품도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황국신민의 적자가 되려고 했던 소년의 광복 후 자민족에 대한 씻기 어려운 혐오감과 짙은 소외의식을 그리고 있다.<sup>3</sup> 조선인이란 편견과 아이들의 놀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충실한 황국신민이 되려고 애썼으며 2등만 되려고 했던 교활한 처세술을 망각함으로써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주인공과 화가의 꿈을 버리고 결혼도 안한 채 과거의 피해자로서의 아픈 기억에 시달리는 일본인 친구를 통하여 전쟁이 남기고 간 상처를 그리고 있는 내용이다. 심사과정에서 재일동포입장에서 일본현실의 모순을 분석적으로 잘 나타냈으나 후반부의 구성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이 작품 역시 후보작에 그치고 말았다.

이어 같은 해에 이회성은 다시 ‘가야코를 위하여(伽椰子のために)’를 발표하여 제64회(1970년 하반기)의 후보에 오른다. 이 작품은 주인공 상준을 통하여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인처럼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 반쪽바리라는 주눅이 들며 자기 은폐의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조선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취직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고, 차별과 편견이 심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대두되는 귀화문제와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 등 일본사회의 문제점 때문이다. 이 작품은 ‘재일동포에 대하여 일본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모순을 조명한 사회문제소설로서 일본문학의 역사상 최초로 작가에 의해 날카로운 메스가 가해졌다.’<sup>4</sup>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회성에게 있어서 3번째로 아쿠다가와상 후보작에 오른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는 당선작 ‘香子’ 못지않게 심사위원 사이에 많은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후반부 구성상의 문제점과 주인공들의 애정이 통속적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점이 많은 심사위원들의 지적을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말았다.

<sup>3</sup> 竹田青嗣, <在日>根据, 国文社, 1986.17-20쪽

<sup>4</sup> 西乡竹彦, 伽椰子のために, 新潮文库 1985. 242쪽

1971년 상반기에는 바로 전년에 이어 이회성의 ‘청구의 집(靑丘の家)’이 4번째로 후보작으로 뽑힌다. ‘청구의 집’ 역시 작가의 성장소설로서 제일조선인 젊은이들의 방황과 고뇌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에는 주인공이 같은 조선인학생들의 조직활동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키워가는 모습, 일본인으로 살아가려는 자기 은폐의 고통, 그리고 이성애에 대한 그리움과 성적 충동들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청구의 집’은 심사과정에서 밝고 평이한 필체에 호감이 가고 인물에 대한 작가의 눈도 예리하다는 호평도 받았으나 제재를 취급하는데 안이함이 보이며 편폭이 조금 길고 문장도 좀 간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청구의 집’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전회의 후보작인 ‘가야코를 위하여’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이회성은 ‘우리 청춘의 도상에서’에서부터 5번이나 연이어 후보에 오른 끝에 ‘다듬이질 하는 여인(砧をうつ女)’<sup>5</sup>으로 제일조선인 최초로 아쿠다가와상을 받는다

이회성은 ‘다듬이질 하는 여인’으로 1972년 제67회 아쿠다가와상을 수상하게 된다. ‘다듬이질 하는 여인’은 어머니가 죽은 후 외할머니의 신세타령을 통하여 일본사회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꾀꾀이 살아가고 있는 제일조선인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들을 등장시켜 감명을 주고 있다. 이처럼 작품은 한결같이 긍지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조선인들의 모습이거나 조선의 풍속과 신앙심을 향토색 짙게 그려내고 있다. 희노애락의 감정의 기복이 극심한 평범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간략한 문체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어 인상적이다. 이 작품은 심사과정에서 소재를 다루는 솜씨가 좋고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 등 등장인물들이 잘 그려져 있어 이전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훨씬 좋다는 등 많은 호평을 받았다. 심사위원들 사이에는 이전의 작품으로 당당하게 수상했어야 했다는 소리마저 나올 정도로 어려운 곡절 끝의 뒤 늦은 수상이지만 이 상은 그에게 있어서 뜻 깊은 일이었다. 이회성수상을 전후하여 김석범, 정승박, 김학영 등이 후보자로 된다. 김석범은 1970년에 ‘萬德幽靈奇譚’로 이회성의 ‘청구의집’과 함께 제65회 후보에 올랐다. ‘萬德幽靈奇譚’은 애비없이 자란 관음사의 중인 만덕의 일대기로서 일제의 징용과 4.3사건을 거치면서 우매함에서 깨어가는 만덕의 모습을 통하여 어두운 사회현실에 대한 작가의 이해의 폭과 고통의 깊이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조선 유교사상의 비타협적이며 실천적인 성격과 봉건지배계급의 그늘 속에서나마 억센 에너지를 내뿜는 조선민중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sup>6</sup> ‘萬德幽靈奇譚’은 소박하고 때묻지 않은 토속성과 민중적인 저항감을 문학적인 리얼리티로 잘 소화해냈다. 주제나 문체구성이 뚜렷하고 일본인 작품에서는 볼수 없는 활력을 가지고 있다. 필체도 강인하고 호쾌하여 영웅전스타일이다. 그리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이 작품만이 유일하게 수상작으로 천거될만큼 강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다수의 심사위원들로부터 아쿠다가와 상보다는 나오키상에 더 어울리는 작품이란 지적을 받고 수상작에서 제외되었다

정승박(1923-)은 1971년 “농민문학”에 ‘벌거숭이포로(裸の捕虜)’를 발표하였는데 이 작품이 이회성이 수상한 해인 1972년 제67회 아

<sup>5</sup> 이호철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어 1972년 한국 정음사에서 출판된다.

<sup>6</sup> 小野梯次郎, 金石范文学‘万德幽灵奇谭’, 风纹29, 1982, 96쪽

쿠다가와상 후보작으로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전쟁중 공장에서 일하던 주인공이 동료들의 식량을 시골에서 구해오다가 경찰에 붙들려 중국군 포로들이 기관총의 감시아래 강제노동을 하고 있는 댐공사건설현장으로 보내진다. 그 곳에 있다가 살해당하고 말것이라는 생각에 주인공은 얼어붙은 변소바닥을 통하여 탈출한다는 내용이다. 작가는 군국주의의 강압하에 고난에 찬 자신의 생활체험에 대해 언성을 높이거나 비분강개하지 않고 담담하게 차분히 토로해내고 있다. 이로부터 그의 작품에는 어둡고 쓰라린 분위기 대신 일본인들의 생활과 정서를 이해하려는 따듯한 마음씨와 온건한 휴머니즘이 전편에 흐르고 있다. 한마디로 ‘벌거숭이포로’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작가 체험의 문학으로서 재주로 쓴 작품이 아니라 덕으로 쓴 작품이라는 높은 평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최종심사에서는 제재나 기법에 특색이 있으나 길이가 짧고 후반부에서 힘이 빠졌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후보작으로 머물고 말았다.

김학영(1938-1985)은 동경대학문학부의 동인지 “新思潮”에 참여하여 1965년 작품 ‘途上’을 발표하고 그해 가을에 말더듬이라는 이유로 주위로 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얼어붙은 입(凍える口)’으로 문예상을 수상하면서 일본문단에 등장한다. 그리고 ‘자갈길(石の道)’등으로 4차례에 걸쳐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오른다. 1973년에 발표한 ‘자갈길’은 제70회 아쿠타가와상 후보작으로 당선된다, 이 작품은 아버지의 폭력을 그리되 그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정다운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 인상적이다. 낙태를 하기 위해 병원을 찾으며 갈마드는 아버지에 대한 회상속에 등장하는 어머니 없는 힘든 생활을 부녀가 정겹게 살아가는 모습과 길을 잃고 아버지를 찾아 부르며 해매는 장면에는 아버지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이 녹아있다. 심사평에서 조선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강인한 생활상을 잘 그려냈다는 충분한 공정을 받았으나 여주인공의 회상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환상적인 결말처리가 너무 가볍게 흐렀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학영은 ‘여름의 균열(夏の龜裂)’로 제71회 아쿠타가와상 후보로 선정된다. 이 작품은 ‘반쪽바리’로 살아가는 주인공의 실존이 설득력 있게 묘사되어 있다. 이 작품은 그의 초기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일본여성과 사귀고 연애로까지 발전하되 결국 한국인이라는 이유때문에 주위는 물론, 애인에게서까지 거부당하며 실패로 끝나는 비극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민족의식을 상실한 주인공이 동포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들에게서 느끼는 위화감을 통하여 제일조선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간상을 그려내고 있다. 심사과정에서 이 작품은 주인공의 고독감이 전편에서 주조를 이루고 있는 깔끔한 작품으로 주제를 진지하게 정면에서 다루고 있으며 독자에게 호소하는 성실성과 박력이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너무 진지하여 오히려 작품의 맛과 깊이를 잃어버렸으며 독서회의 정경이나 회원들을 충분히 그려내지 못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후보작으로 머물고 말았다.

김학영은 ‘겨울 빛(冬の光)’으로 다시 제76회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오른다. 이 작품은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가족내의 비극을 그리고 있다. 아버지는 어린시절부터 가족부양의 책임을 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지만 삭막한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온 한을 가족에게 폭력으로 해소하려고 한다. 그것은 타국에서 어머니의 자살과 어린 동생의 죽음을 맞이한

올분에서 표출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외면을 당한다. 이 작품은 일본인가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한 혈육의 정이 조선전쟁을 배경으로 잘 나타나 있는 성공작으로 재일조선인의 실존을 잘 전한 성과작이라는 평을 받았으나 후반부에 영탄조의 문장이 너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9인의 심사위원 가운데 6인의 호평으로 마지막까지 두 작품과 함께 남았으나 수상작으로 강하게 추천할만한 참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하고 말았다

김학영은 ‘끝’로 제79회 아쿠다가와상 후보에 오른다. 이 작품은 아버지에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얻어맞은 주인공이 끝을 기둥에 던지면서 살의를 달래는 등 폭력이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모습이 이전 작품에서처럼 단순히 강대한 힘을 휘두르는 지배자로만 등장하지 않고 일본사회에서 커다란 괴로움을 겪어온 존재로 그려져 인상적이다. 무식한 조선인으로 폭력만 휘두르던 주인공의 부친은 귀화문제와 사업상문제로 가족갈등과 동족집단에서의 반발야기 등을 겪어야만 했다. 말더듬이었기에 소외감을 느꼈던 주인공은 이러한 부친의 서러움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아버지와 화해를 모색하게 된다.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에 대해 수상작 외에 가장 인상에 남는 작품이라는 심사평을 남기도 있다.

김학영은 4차례에 걸쳐 아쿠다가와상 후보에 선정된다. 이로써 그의 문학적 역량은 충분히 증명된 셈이다. 사실 그는 아쿠다가와상 수상작의 가장 유력한 유망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1985년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

1980년대에 들어서 이양지(1955-1992)는 이회성에 이어 재일조선인으로서 두 번째로 아쿠다가화상을 수상한다. 이양지는 ‘나비타령(北·列傳)’, ‘해녀(かづきめ)’, ‘각(刻)’으로 후보에 올랐다가 ‘유희(由熙)’로 수상한다.

이양지는 ‘나비타령’으로 문단에 데뷔한다. 이 작품은 1982년 하반기에 제88회 아쿠다가와상 후보에 선정된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부모의 별거와 이혼을 임하여 가야금과 판소리에 접하고 가정의 불화와 사회의 조선인 차별에서 도피하기 위하여 일본을 떠나 한국행을 한다. 그녀는 한국에 와서 고국에 대한 거리감과 함께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이로부터 이방인이라는 질은 소외의식을 느끼게 된다. 이 작품은 정체성이라는 참신한 주제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잡한 가족관계때문에 주제가 흐려진 것이 안타깝다는 후보작 심사평 외에는 수상작인 ‘꿈의 벽’, ‘사가와 군에서 온 편지’의 그늘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해녀’는 1983년 상반기 제89회의 후보작에 오른다. 이 작품은 이복언니의 자살을 접한 주인공이 언니의 삶을 추적하는 형식으로 시작된다. 결국 주인공은 어릴 때 왕성하던 언니의 식욕도 욕구불만의 변형이며 가출한 후 못 사내들과의 난잡한 성교와 동거의 배후에도 오빠의 겁탈과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의 피해의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의식이 출산공포로 나타나 누이가 끝내 자살하고 만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구성에 문제가 있으며 재일조선인의 심정이 좀더 솔직하게 표현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문제점때문에 후보작에 머물고 말았다.

‘각’은 1984년 하반기 제92회의 후보작에 올랐다. ‘각’은 ‘나비타령’의 후속 작품으로 창작된 것이다. 한국에 유학온 주인공은 버스소음에 대한 생리적인 거부감을 나타내고 애국충정이나 국민의식 등 윤리덕목만 강요하는

교사와 갈등을 빚게 된다. ‘조선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일본에서도 고국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이 작품은 재일조선인의 디아스포라적 존재를 냉철한 눈으로 관찰하고 있다. 이 작품은 후보작으로 주인공의 심리가 잘 나타나 있고 서울 유학체험을 활력있게 그렸으며 실험적인 면과 신인다운 신선미가 있다는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그리고 수상작과 더불어 마지막까지 수상을 다투었으나 일본어 감각이 좀 문제된다는 점에서 마지막 순간에 탈락되었다.

이양지는 3 번이나 아쿠다가와상 후보에 올랐다가 탈락하고 4번째만에 ‘유희’로 수상한다. 이 작품은 주인공이 한국유학도중 대금소리와 한글에 크게 애착을 느낀다. 주인공은 고국을 이해해야 한다는 언니의 충고와 모국인만큼 사랑해야 한다는 자신의 내부소리 때문에 여러가지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러다가 끝내는 위선자, 거짓말쟁이라는 허위의식에 시달리다 말을 잃고 자폐증증세까지 보이다가 자신의 위선적 태도에 환멸을 느끼고 귀국한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한국과 일본 사이,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의 갈등을 통해 재일조선인2세가 겪는 이중정체성의 갈등문제를 다루고 있다. 심사과정에서 ‘유희’는 감성과 기질이 매력적이긴 하나 인물상이 확실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민족과 개인적인 체험으로 오랜 문화를 가슴에 안고 살아온 언어의 문제를 다룬 주제가 작품의 구성과 줄거리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있으며 유희의 고뇌의 깊이를 박력있는 필치로 잘 표현한 소설이라는 평가와 함께 제100회 아쿠다가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양지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한 이기승(1952-)이 ‘제로항’으로 1985년 상반기 제93회 아쿠다가와상 후보에 올랐다. 이 작품에는 조센징이란 심적 부담에 쫓기다 오토바이사고로 친구를 잃고 고국에 반발하는 영호와 조센징이라는 열등의식 때문에 자꾸 자기를 멀리 하려는 한국인 청년을 사랑하는 일본여성 가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이로부터 주인공이 한국과 일본사이에서 방황하는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은 후보작으로서 재일조선인의 굴곡된 내면심리와 고도성장하에서 소외되어 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다루어 과거 재일조선인 문학과는 다른 참신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주제가 뚜렷하고 박력이 넘친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처음의 의도가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그려지지 못한 등 문제점으로 탈락되고 말았다.

1990년대에 들어서 재일조선인문학은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된 듯하다. 이로부터 1980년대 이양지, 이기승 이후<sup>7</sup>아쿠다가와상과도 인연이 좀 뜸해지는 듯 했다. 그러다가 유미리가 ‘가족시네마’로 제116회 아쿠다가와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국면이 많이 돌아섰다. 유미리는 ‘풀하우스’, ‘콩나물(もやし)’로 연속 아쿠다가와상의 후보에 올랐다가 드디어 ‘가족시네마(家族シネマ)’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다.<sup>8</sup> 1995년에 발표한 ‘풀하우스(フルハウス)’는 제113회 아쿠다가와상 후보작에 오른다. 이 작품의 내용을 보면, 흩어진 가족들의 새출발을 위하여 아버지는 빚을 얻어 새집을 짓고 두 딸을 불러모으지

<sup>7</sup>이양지 이후 鷺澤萌라는 혼혈작가가 제101회, 제104회, 제107회 후보로 올랐으나 본고에서는 논외로 하도록 한다.

<sup>8</sup>유미리는 창작을 회곡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막내의 자살을 계기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뉴대를 갖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물고기 축제(魚の祭フルハウス)’란 작품으로 岸田상을 수상했다.

만 이혼한 부인과 두 딸은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이에 아버지는 오갈 데가 없는 다른 가족을 불러와서 가족의 빈자리를 채우게 한다는 내용으로 붕괴된 가정으로 인한 고통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여성다운 필치로 잘 묘사되어 있다. 이 작품에 대한 심사평을 보면 소재를 잘 포착한 좋은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표제와 내용의 의미가 분명치 못하고 거칠고 줄거리의 세부 연결이 불충분하여 군데군데 빈틈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같은 해에 제114회 아쿠다가와상 후보작에 선정된 ‘콩나물’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여주인공은 40대 후반의 유부남인 廣瀨와 관계를 맺지만 그의 부인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오자 그와 헤어지기로 결심한다. 고독에 지친 그녀가 응답이 없는 전화통을 붙들고 ‘여보세요’, ‘여보세요’하고 절규하듯이 외치는 마지막 장면은 여성의 은밀한 내부속에 자리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고독과 허무를 인상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은 심사과정에서 문장의 거침, 인간관의 왜곡, 장면들의 단순한 연결, 첫머리와 결말의 윤곽 불확실 등 문제점으로 결국 탈락되었다.

아쿠다가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가족시네마’도 역시 가족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부모의 별거로 흩어진 가족들이 20년만에 재회하여 가족 얘기를 영화로 만들려 한다는 소재를 다루고 있다.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고심하는 아버지의 심리가 영화촬영을 매개로 하여 잘 그려져 있다. 가족해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내면세계를 통해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은 심사과정에서 줄거리전개에 일부 무리가 있고 등장인물도 현실감이 없으며 연극적인 상황설정이 소설로서의 매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러나 소설보다 회곡에 가까운 작품으로 대사나 장면전환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특수한 가족관계를 그리면서 부부, 부모자식, 형제의 본질이 잘 나타나 있고 인물묘사와 결말도 성공한 작품으로 가족간의 고독과 위화감이 인간세계에서의 존재의 상실감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는 등 많은 호평을 받아 수상되었다.

이상 아쿠다가와상을 통해 제일조선인문학 가운데 3인의 수상작, 6인의 후보작의 작품세계를 시기별로 주로 심사평을 통해 스케치식으로 살펴보았다.

### 3. 마무리

두말할 것도 없이 아쿠다가와상은 일본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문학상이다. 그만큼 후보작에 오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수상하기는 더욱 힘들다. 이로부터 문학의 일종 패권담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런만큼 일본에서 문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일조선인 문학도 여기서 예외가 아닌 줄로 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게 모르게 아쿠다가와상에 신경을 써며 도전도 해보았으리라. 제일조선인 문학의 주요멤버들이 이 상과 인연을 맺은 것은 그간의 사정을 잘 말해준다. 그리고 아쿠다가와상 후보작에 오르거나 수상됨으로써 제일조선인 문학역량을 충분히 과시하고 있다. 예컨대 김달수는 2번이나 후보작가로 선정되고 이회성은 연속 다섯 번이나 후보 작가가 된다. 그리고 이회성은 결국 제116회에 수상한다. 그리고 제일조선인 작가들이 후보작에서 탈락했을 때도 문학 외적인 원인이나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김사랑의 ‘빛속에서’



의 경우, 제3,4,8회에 공동 수상자를 낸 적이 있으며 그 후에도 공동 수상자를 낸 적이 있다. 그런데 수상자를 한 명으로 한한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데는 어쩐지 석연치 못한 감을 준다. 당시 일본 종주국과 조선 식민지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요소가 알게 모르게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훗날 이회성이 제66회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소감을 피로할 때 김사량이 자신보다 먼저 언녕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사뭇 유감스러운 일로서 자신은 그를 대신하여 아쿠다가와상을 받는다고 한 것은 의미심장하다.<sup>9</sup> 그리고 김달수의 경우, 사실 실제 운영에 있어서 장편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해탄’이 문제가 된 것은 역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편의 기준이 애매하며 또한 예심에 통과한 작품을 본선에서 문제삼을 수 없다는 일부 심사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이러한 의견이 전적으로 무시되고 그의 작품이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바로 그렇다. 또한 ‘박달의 재판’은 신인의 기준이 애매하고, 다른 신인상을 받아 문단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작가들에게도 준 선례가 있는 경우를 생각할 때 신인이 아닌 문단에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기성작가가 창작한 작품이라고 탈락시킨 것도 그렇다.

전반적으로 아쿠다가와상 후보작에 올랐거나 수상한 제일조선인 문학을 보면 그 작품경향이 시기별로나 세대별로 분명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김사량의 경우를 보면, 그는 제일조선인 문학 초창기 제1세대 대표적 작가로서 민족의 문제를 강하게 물고 늘어진다. 그의 작품에는 일제의 식민 착취를 고발하거나 이국타향에서 살아가는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 및 망향의 한이 잘 반영되어 있다. 그의 작품은 전형적인 광복 전 정직한 식민지 글쓰기의 한 보기가 되겠다.

김달수는 전형적인 광복 후 제일조선인 문학 첫시기, 주로 1950-60년대 작가로서 제1세대로 꼽을 수 있다. 이 세대는 광복 전 제1세대의 문학적 주제를 계승하면서도 이데올로기로 인한 민족의 비운 및 일본에서의 민족 차별 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김달수의 경우, 그의 작품에는 광복 후 미군정을 일제식민통치를 대신한 새로운 식민통치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부터 남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등 좌익적인 성향이 강한 편이었다. 그 본인이 좌익조직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이회성과 김학영은 전형적인 광복후 주로 1970년대 제일조선인 문학 두 번째 시기, 제2세대로 꼽을 수 있다. 이들의 작품은 일본에서 조선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움, 예컨대 김학영의 문학 경우, 민족문제, 말더듬이, 아버지의 폭력, 이 세 가지를 많이 다룬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로 ‘반쪽바리’로서 살아가는 제일조선인의 ‘재일’의 어려움이 관통되어 있다. 그의 주인공들은 일본 사회에 적극적으로 안주하지도 못한채 민족 이념이나 주체성을 추구하나 현실의 벽에 부딪쳐 괴로워하는 형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松原新一은 이러한 괴로움의 본질을 제일조선인 문학의 민족적 주체성이라는 명제와 스스로의 현실적 실존 사이에 놓인 복잡한 거리감<sup>10</sup>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회성이나 김학영의 문학은 민족적 기시 및 귀화, 사업, 결혼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제일조선인의 현실적 실존을 잘 보여주고 있다.

<sup>9</sup> 叡智の豫感, 文藝春秋, 1971.9. 375쪽

<sup>10</sup> 松原新一, 在日朝鮮人の文學とは何か, 群像1972.9, 174-175쪽

이양지와 김기승은 전형적인 제3세대, 주로 1980년대 재일조선인 작가로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정체성문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포스트모던시대 중요한 문학담론의 하나인 디아스포라문학주제를 이끌어 내오고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黒古一夫가 ‘在日韩国人文学现在’<sup>11</sup>에서 이양지의 작품에 대해 자기 분열을 일으킨다고 한 것은 일리가 있다. 이양지의 경우 ‘나비타령’, ‘제로항’, ‘유희’는 바로 이런 디아스포라문학주제에 바쳐진 작품들이다. 이양지가 ‘유희’의 주인공 유희에 대하여 자기가 한국인으로서의 피와 정신적 자립을 얻기 위해 자신속에 있던 유희를 매장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은 그간의 사정을 잘 말해준다.<sup>12</sup>

유미리는 전형적인 제4세대로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재일조선인의 현재적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다. 제4세대는 위 세대들처럼 더는 민족적인데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현대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컨대 유미리의 경우 개인중심적이고 파편화되고 파괴되는 현대가정의 문제가 주요 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콩나물’, ‘가족시네마’는 그 보기가 되겠다.

상대적으로 놓고 볼 때 재일조선인 문학이 제1세대들이 국가, 민족 및 이데올로기적인 담론을 많이 펴냈고 제2세대들은 광복 후 제1세대의 맥을 이어면서 재일조선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적 실존을 보였주었으며 제3세대들은 본격적으로 디아스포라적인 민족정체성문제를 많이 다루었고 제4세대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반영하였다.

재일조선인 문학은 제1세대들이 그래도 우리말로 창작을 많이 하였다면 훗 세대로 내려갈 수록 일본어로 많이 창작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제1세대들이 한반도 고국태생이면서 우리말이 훨씬 능했다면 훗 세대들은 일본태생이면서 일본말이 훨씬 능한 특색을 나타낸다. 문학의 제1요소가 언어임을 감안할 때 자기가 익숙한 언어로 창작하게 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제1세대와 훗 세대 사이 창작에 있어서 이런 언어 차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제1세대 문학은 일본문단에 그다지 알려지지 못했다. 사실 일본어로 창작된 훗 세대들의 창작도 일본문단의 편견속에서 그리 긍정을 못 받았다. 그러나 아쿠다가와상 후보작에 오르고 수상을 하게 되면서 재일조선인 문학이 적어도 일본문단에 알려지게 되고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재일조선인 문학은 이회성의 수상을 전후로 많은 재일조선인 작가들의 작품들이 연이어 집중적으로 아쿠다가와상의 후보에 선정됨으로써 이들 작품이 일본독자들의 주목을 받고 일본문단에서 재일조선인 문학이라는 존재를 본격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사실 재일조선인 작가들은 아쿠다가와상 후보작에 오르거나 수상함으로써 고국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긍정을 받게 된다. 이회성이 수상 후 오래동안 그리던 고국-한국 방문이 이루어지고 한국에서 민족통일을 호소하고 민족문학을 제창하는 강연을 하는 등 정치, 문학적인 면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수상에 힘 입은바 크다.

[끝]2011-05-27

<sup>11</sup> 民涛, 创刊号, 1987年秋, 87쪽

<sup>12</sup> 李良枝, 言語の杖を求めて李良枝全集, 講談社, 1993. 647쪽

## 참고문헌

竹田靑嗣. 在日の根據, 국문사 1980

小野悌次郎, 金石範文學 萬德幽靈奇譚, 風紋29, 1982

黒古一夫, 在日韓國人文學の現在, 民濤, 創刊號 1987. 秋

磯具治良, 在日朝鮮人文學の昨日, 今日, 明日, 在日朝鮮韓國人, 三一書房, 1990

임호치. 在日朝鮮人日本語文學論, 신간사 1991

임전혜. 日本における朝鮮人の文學の歴史, 일본정법대학출판국 1994

이한창. 재일 한국인 문학의 역사와 그 현황, 일본연구 제5집, 중앙대일본연구소, 1990

---. 제일동포 문학에 나타난 부자간의 갈등과 화해의 양상연구, 고암황성규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3,

---. 제일교포문학 연구, 외국문학 1994년 겨울

---. 소외감감과 내향적인 김학영의 문학세계, 일본학보 제37집 1996

## 【中文摘要】

### 通过芥川奖透视在日韩裔文学作品之想

林香兰

芥川奖正式名称为芥川龙之介奖乃是纪念日本大正时代的文豪芥川龙之介（1892-1927）所设立的文学奖，并由主办单位文艺春秋颁发给纯文学新人作家的一个奖项；现今的主办单位已改为日本文学振兴会。

1935年（昭和10年）由菊池宽提议为纪念友人芥川龙之介而设立，同年也设立了直木奖。从此以后，每年举行两次的选拔活动。上半年（12月1日～5月31日之前公开发表的作品）是在7月中旬进行选拔、8月中旬颁奖，刊载于《文艺春秋》9月号。下半年度（6月1日～11月30日之前公开发表的作品）是在翌年1月中旬进行选拔、同年2月中旬颁奖，在《文艺春秋》3月号刊载。该奖项在二次大战时1945年一度中断过，后来在1949年重新开始进行选拔活动。

芥川奖的遴选，并非采取公开招募的方式，而是根据选拔委员的协议来决定候补及得奖人选。这些选拔委员从报章杂志上，新人作家或无名作家所发表的纯文学短篇作品中，挑选出最优秀的作品予以奖励，得奖者颁赠一百万日圆的奖金和怀表一只。其中，芥川奖是纯文学奖的代表奖项，而直木奖则是大众文学的代表奖项；芥川奖以鼓励新人作家为宗旨，直木奖则是给予已出书的大众文学作家一项荣誉的肯定。

在日韩裔侨胞也在此奖项上获益颇丰。以往入围或获奖的韩裔侨胞也曾获邀回故乡-韩国访问交流，而且这些在文坛上有所造诣的韩裔侨胞也民族统一，提倡民族文化等方面引起不小的反响。